

목주기도의 모후

2022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도미니코 수도회는 처음부터 성모 신심을 전파해 온 성 도미니코와 많은 형제 자매들로부터 목주 기도를 물려받았습니다.

10 월은 특별히 목주기도에 바쳐진 달입니다. 세상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청하거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목주기도를 드립니다. 성모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어머니와 같으시다고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일을 맞아, 목주기도를 통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성모님께 다가갑니다. 성모송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탄생, 삶, 죽음, 부활 안으로 들어갑니다. 환희, 고통, 영광, 그리고 빛의 다섯 신비들은 우리 형제이며 친구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지만, 또한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 방법으로 동정 마리아의 현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교황님들은 이 기도의 “복음적 특성”과 그리스도론적인 지향을 강조하였습니다.

성 비오 10 세는 “목주기도는 모든 기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은총에 가장 풍부합니다.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가장 마음에 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 바오로 6 세는 “목주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의 마음을 통하여 바라본 주님의 삶의 신비들을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평온하고 묵상적인 리듬을 요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 세는 “목주 기도는 내가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입니다. 단순함 때문에, 그리고 그 깊이 때문에 놀라운 기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주기도는 기쁨과 고통의 순간들에 나와 함께 했습니다. 나는 많은 걱정거리들을 목주기도에 맡겼고, 언제나 그 안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베네딕토 16 세는 “하느님의 어머니 안에서 말씀으로 빛어진 삶의 모습을 관상하면서, 우리도 신앙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도록 초대됩니다. 그 신앙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 안에 살려 오십니다.”(주님의 말씀, 28 항)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성모송을 바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중심적인 순간들을 묵상하도록 인도됩니다. 그러므로써 마리아와 성 요셉에게 그러했듯이 그분께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행동의 중심이 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성인들이 놀라운 말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효과적이고 애정어린 이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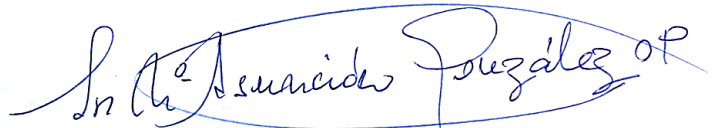
콜카타의 성녀 테레사는 “마리아는 우리 어머니이고 우리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되시므로, 나는 언제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모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아주 가깝다고 느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영적인 자녀들이 그분께 영적인 유산을 청했을 때, 그분은 즉시 “묵주기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매 여러분, 도미니칸적인 기도인 묵주기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전파하는 이들이 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묵주기도의 모후 축일을 기원합니다.

포옹과 기도를 보냅니다.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ue ink, reading "Sor M^a Asunción González, O.P.", enclosed within a blue oval.

Sor M^a Asunción González, O.P.

Priora General